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에 따른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 차이*

전 윤 미

이 윤 형[†]

화신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에 따라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 내재적 동기,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잠재프로파일 분석, 교차 분석을 통해 두 집단의 대학생활 적응 양상이 구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는 일반대학생 215명, 성인학습자 14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은 자아존중감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대학생이 성인학습자 보다 높은 대학생활 적응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인 반면 성인학습자는 일반대학생보다 높은 내재적 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 양상은 ‘고신념-저동기 문제해결형’과 ‘저신념-고동기 문제해결형’으로 구분되었는데 대부분의 일반대학생은 전자에 속하였으며 대부분의 성인학습자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 유형이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집단의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대학생활 적응,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 잠재프로파일 분석

* 이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이 연구는 대한민국교육부(NRF-2020S1A3A2A02103899)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윤형,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Tel: (053) 810-2231, E-mail: yhleec01@yu.ac.kr

Copyright ©2024,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국내 교육과 입시제도에서는 성인학습자를 만 2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서는 만 30세 이상을 성인학습자로 규정한다. 2021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진학 대상자 중 만 24세 이상인 성인학습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4년제의 경우 전체 재학생 중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6.3%에 이른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또한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0년 30.5%에서 2020년 42.1%로 약 11.6%가 증가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이러한 수치는 대학에 성인학습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성인학습자 중 많은 사람들이 졸업에 이르기 전 학업을 지연하고 중단하는데 이러한 성인학습자의 중도탈락은 개인의 기회비용 손실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 낭비도 초래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성인학습자가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제도 나아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시기로 수동적이고 의존적 모습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이며 책임감을 갖게 되는 전환의 시점이다. 또한 이들의 대학생활은 단순 지식 습득과 새로운 환경의 적응을 넘어 사회적 동화와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학생활 적응 연구는 심리적 요소, 개인적 욕구, 대인관계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애 목표나 미래지향 목표와 같은 목표설정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자기성찰과 목표

설정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고 있다(김은석, 송경희, 2019; 윤선아, 2016). 정유지와 이은주(2016)는 동기 수준이 높고 목표가 잘 설정된 집단일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도 높다고 설명한다. 문제해결 능력도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라 간주된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다양한 문제에 처음 접하는 대학 시기의 특성상 문제해결 능력이 대학 내 주변 사람과의 갈등 해소, 자기계발과 학업 진행을 위한 필수요소로 문제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우 스트레스와 부적응이 일어난다(박미정, 2018).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고, 학업 공백이 있으며, 학업 이외의 다양한 다른 책임이 부여되는 성인학습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생들과 그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성인학습자의 경우에는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이 높으며 자신의 능력개발과 지식과 기술, 전문성 신장이라는 분명한 내재적 동기가 높지만(안현용, 2021) 자신에게 부여된 다양한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반대학생보다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지속적인 학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심미자, 2016; Bean & Metzner, 1985). 국외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연령대가 젊고 학업 공백 기간이 짧으며 가족 부양의 책임이 적은 경우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고 대학생활 지속 가능성도 높다(Nippert, 2000; Metzner & Bean, 1987).

위와 같이 성인학습자와 일반대학생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는데 현재 대학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학령기의 일반대학생(만 18세~24세)만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성인학습자의 대학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지만(전은희, 김명진, 2015; 허지숙, 2021) 많은 연구가 성인학습자 관련 정책과 운영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정현, 이희수, 2015). 또한, 대학 생활 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특성 중 학업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만 주로 진행되었다(하오선, 2019).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대학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요인 탐색과 대안방안 모색, 성인학습자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수법 개발 및 운영을 살펴본 연구가 있고(김진모, 황영훈, 오진주, 손규태, 윤경신, 2017), 또 성인학습자 특성과 인식에 관한 분석(정미강, 양안나, 2014; 하오선, 김수영, 2018), 성인학습자의 학습장애요인 분석(하오선, 2019) 등의 연구가 있다. 최근 황영아 등(2020)이 성인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토대로 대학 내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지만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스템적 차원에 관한 연구로 성인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구성원인 학령기의 일반대학생과 새로운 학생 자원인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이 차이가 있는지를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

대학생활 적응

대학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학생이 대학 환경 속에서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으로 대학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Baker & Siryk, 1984). 대학생활 적응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가, 대학에서의 사회적 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및 대학환경에 대한 만족, 대학에 대한 애착 정도와 질적 만족도, 일반적 심리적 문제와 신체적 건강 문제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 등이 중요한 기본요소라 제안되고 있다(Grant-Vallone et al., 2004; Wonacott, 2001). 이 중에서도 긍정적 자기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은 적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중요요인으로 간주된다(Pyszczynski, Greenberg, Solomon, Arndt, & Schimmel, 2004).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 능력은 일상생활 중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적응적 대처전략을 찾는 정서, 인지, 행동 과정으로 설명되며(D'Zurilla & Nezu, 1990; Malouff, Thorsteinsson, & Schutte, 2007),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필수요소이다(김미영, 강은희, 박효진, 2021).

문제해결 능력은 또한 대학 내 주변 사람과의 갈등 해결과 자기개발 및 학업능력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간호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문제해결 능력, 공감 능력, 의사소통기술을 살펴본 결과 문제해결 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김미영, 강은희, 박효진, 2021). 또 통제적 환경을 나타내는 군 조직 내 문제해결 능력을 살펴본 결과 문제해결 능력

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또한 높았다(장경화, 2015).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은 인간관계와 개인의 발전, 사회적 적응, 유능성, 정신건강과 새로운 환경 적응에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역경과 맞서 이겨 설 수 있는 능력으로 원만한 인간관계와 자기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스스로 존중하는 태도로 고난을 맞선 후 문제를 맞이하면 이겨 낼 수 있는 신념 또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정의된다(Branden, 1992). 자아존중감은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 모두에게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긍정적 자기평가와 개인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은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나아가 집단에 높은 소속감을 가져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차란희, 노인영, 2020). 특히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성인학습자는 긍정적인 자신 수용과 높은 대처 능력 그리고 높은 대학생활 적응을 보인다(박정숙, 권영은, 2015). 또한 송승민과 이사라(2016)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성인학습자 일수록 높은 전공 만족도를 나타내고 성숙한 태도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또한 적응 능력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자신에 대한 신뢰나 성취 능력 등에 영향 미칠 뿐 아니라 긴장유발, 대인관계, 자신에 대한 태도 및 문제에 대한 해결력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사회적 적응과도 관련성이 높다(김숙진, 안서영, 2018).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성인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필수요소라 제안하고 있다.

내재적 동기

동기는 개인의 행위를 지시하고 복돋아 주며 유지하는 힘이다. 특히 내재적 동기는 과제 자체에 즐거움과 재미 등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박지현, 장재운, 2016).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도전, 신기함 그리고 학습기회를 추구하는 성향을 지닌다(Ryan & Deci, 2000). 또 열정과 의지로 행동하고 자존심이 높고, 우울과 불안에 쉽게 빠지지 않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Ryan 등, 2000). 내재적 동기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생활 만족과 적응이 향상되고 특히 성인학습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와 인간관계, 수행능력을 한정된 범위로 짓지 않고 삶 전반으로 둔다고 설명한다(장성현, 2019).

내재적 동기는 자아존중감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는데 Chirkov와 Ryan(2001)은 동기가 학교생활의 과제 관여, 불안과 전반적 자존감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 제안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동기가 학생의 자존감, 학교생활 만족과 적응, 학업성취 그리고 진로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 보고하였다(Lee, Kim, Song, Lee, & Chun, 2007). 자아존중감은 또한 내재적 동기를 촉진 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며(김동심, 김실희, 2017), 내재적 동기는 크기와 방향에 따라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감에 조절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Schaufeli & Baker, 2004). 김정옥과 김완일(2018)은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내재적 동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자신의 가치와 능력이 높게 평가되면 일에 대한 흥미도 함께 높아져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또한 문제해결 능력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다(김미영, 변은경, 2020). 내재적 동기가 낮은 경우에는 문제해결 수행 능력이 낮고, 내재적 동기가 높은 경우에는 문제해결 능력이 높다(심미정, 오효숙, 2012).

이상의 선행연구들 통해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들이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학생활 적응에도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간에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활 적응 세부 유형 구분은 어떻게 되며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가 세부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가?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구·경북·부산에 소재하는 K, Y, H 등 총 3개 대학교 재학생으로 각 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심리학 개론, 의사소통기술 등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수업 전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해당 과목 게시판에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탑재하였다. 연구 참여

자는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 총 425명(일반대학생 250명, 성인학습자 175명)이다. 총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결측지와 설문 응답에 중도 포기한 65명(일반대학생 35명, 성인학습자 30명)을 제외한 총 360명(일반대학생 215명, 성인학습자 145명)만이 본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년 분포는 1학년 184명(51.1%), 2학년 143명(43%), 3학년 76명(21.1%), 4학년 59명(15.8%)으로 1, 2학년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K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고(2020-08-004-001), 모든 연구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사전 동의서에 서명한 뒤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보상으로는 오천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이 발송되었다.

측정도구

문제해결 능력(problem solving inventory)

Heppner와 Petersen(1982)이 개발한 검사로 전석균(1994)에 의해 번역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토되었다. 총 35문항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접근-회피 양식 16문항,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11문항, 개인통제력 5문항 그리고 여과 문항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과 문항을 제외한 총 32문항으로 재구성한 문제해결 능력 B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B판은 최윤숙(2011)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검토하였고 전체 신뢰도는 .771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의 전체 신뢰도는 .768 문제해결 자신감 .704, 접근-회피 유형 .572, 개인적 통제 .771이며, 성인학습자의 전체 신뢰도는 .872, 문제해결 자신감 .812, 접근-회피 유형 .591, 개인적 통제 .784이다.

표 1. 문제해결 능력 하위요인별 신뢰도

구분	일반대학생	성인학습자
문제해결 자신감	.704	.812
접근-회피 유형	.572	.591
개인적 통제	.771	.784
전체	.768	.872

대학생활 적응(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Baker와 Siryk(1989)가 개발한 척도로 노승현(2016)이 Likert 5점로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총 68개 문항으로 학문적 적응 24문항, 사회적 적응 18문항, 개인·정서 적응 16문항, 대학만족도 7문항 총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형태에 해당되는 문항은 본 연구 내용과 무관하여 제외하고 총 65문항만 연구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대학생활 적응을 의미하며 최저 67점에서 최대 335점이다. Baker와 Siryk(1984)의 전체 신뢰도는 .95이고 노승현(2016)의 전체 신뢰도는 .949이다. 본 연구의 일반대학생 전체 신뢰도는 .933이며 학업적응 .881, 사회적응 879, 개인·정서 적응 .832, 대학만족도 .792이다. 성인학습자 전체 신뢰도는 .952, 학업적응 .862, 사회적응 .825, 개인·정서 적응 .512, 대학만족도 .961이다.

표 2.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별 신뢰도

구분	일반대학생	성인학습자
학업적응	.881	.862
사회적응	.879	.825
개인·정서 적응	.832	.512
대학만족도	.792	.961
전체	.933	.952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재(1974)가 국내 실정에 맞도록 번안하고 박민정(2002)이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이며 Likert 4점으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박민정(2002)의 전체 신뢰도는 .80이며 본 연구의 일반대학생의 전체 신뢰도는 .865, 성인학습자 전체 신뢰도는 .808이다.

표 3.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별 신뢰도

구분	일반대학생	성인학습자
전체	.865	.808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Ryan(1982)가 개발한 검사로 최진훈(2008)이 국내 문화와 실정에 맞도록 번안하였다. 본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재미와 즐거움 7문항, 유능감 5문항, 자기 선택감 5문항 압박과 긴장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7점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최저 22점, 최대 154점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동기가 높다. 최진훈(2008)의 전체 신뢰도는 .93이며 본 연구의 일반 대학생 전체 신뢰

표 4. 내재적 동기 하위요인별 신뢰도

구분	일반대학생	성인학습자
재미와 즐거움	.900	.875
유능감	.834	.784
자기 선택감	.723	.693
압박과 긴장	.703	.606
전체	.902	.841

도는 .902 재미와 즐거움 .900, 유능감 .834, 자기 선택감 .723, 압박과 긴장 .703이며 성인학습자의 전체 신뢰도는 .841 재미와 즐거움 .875, 유능감 .784, 자기 선택감 .693, 압박과 긴장 .606이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과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및 내재적 동기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 유형 구분과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도출한 유형별 LPA를 바탕으로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분포 차이를 살펴보고자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표 5. 성인학습자와 일반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 차이

변수	집단 간 차이		<i>t</i>
	일반대학생 (<i>n</i> =215)	성인학습자 (<i>n</i> =145)	
	<i>M</i> (<i>SD</i>)	<i>M</i> (<i>SD</i>)	
문제해결 능력	141.81(16.645)	127.86(16.296)	7.866***
문제해결 자신감	46.07(7.180)	46.46(7.522)	.779
접근-회피 유형	62.48(6.983)	48.98(5.676)	20.147***
개인적통제	33.26(6.123)	33.43(5.961)	-.257
자아존중감	32.60(5.408)	32.03(5.107)	1.007
내재적 동기	88.78(19.536)	93.33(19.554)	-2.166*
재미와 즐거움	27.40(8.662)	28.97(7.791)	-1.745
유능감	19.87(5.923)	18.76(5.219)	1.838
자기선택감	22.22(5.294)	24.81(5.233)	-4.563***
압박과 긴장	19.28(5.186)	20.80(5.230)	-2.720**
대학생활적응	242.80(33.477)	233.05(32.317)	2.749**
학업적응	82.27(12.679)	80.34(12.317)	1.429
사회적응	59.45(10.206)	50.88(8.763)	8.264***
개인정서적응	49.35(9.581)	49.88(10.271)	-.497
대학 만족도	51.73(7.687)	51.95(7.311)	-.268

* *p* < .05 *** *p* < .001

연구 결과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 차이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생활 적응,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t = 2.749, p < .005$)과 문제해결 능력($t = 7.866, p < .001$)은 일반대학생이 성인학습자 보다 높은 반면 내재적 동기($t = -2.166, p < .05$)는 일반대학생보다 성인학습자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분류와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의 특성 차이

대학생활적응 분류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4개의 정보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정보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를 사용하였으며 χ^2 검증을 바탕으로 한 LMR, LRT, BLRT를 통해 잠재계층 수의 적절성을 알아보고 엔트로피(entropy)값을 통해 잠재계층 분류의 질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AIC, BIC, SABIC 값은 작고, 엔트로피는 높고, LMR, LRT, BLRT은 $p < .05$ 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Reinecke, 2006).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통계적 기준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첫째, 잠재계층 수를 2개에서 4개까지 점차 늘려감에 따라 세 가지 정보지수가 모두 감소해 적합도는 점차 낮아졌다. 둘째, 잠재계층을 늘려가며 조정된

표 6.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통계적 기준 결과

분류기준		잠재계층 수($n=360$)		
		2개	3개	4개
정보 지수	AIC	18479.331	18151.844	17888.442
	BIC	18588.142	18299.516	18074.975
	SABIC	18499.312	18178.960	17922.694
조정된 χ^2 검증	LMR	$p < .05$	$p > .05$	$p > .05$
	LRT	$p < .05$	$p > .05$	$p > .05$
	BLRT	$p < .05$	$p > .05$	$p > .05$
분류 질	엔트로피	0.925	0.862	0.899
분류율	집단1	244(67.8%)	145(40.3%)	64(17.8%)
	집단2	115(32.2%)	112(31.1%)	72(20.0%)
	집단3		103(28.6%)	143(39.7%)
	집단4			81(22.5%)

표 7. 잠재 프로파일의 대학생활 적응 하위 구성요 인별 기술통계치

	고신념-저동기 문제해결형 (N=244, 67.8%)	저신념-고동기 문제해결형 (N=116, 32.2%)
	직관적 문제해결 접근 자기 믿음 능력 중심적	체계적 문제해결 접근 자기 인식 열정적 참여
	M(SE)	M(SE)
1. 문제해결 능력	4.428(1.476)	3.892(1.297)
2. 문제해결 자신감	4.248(1.416)	3.993(1.331)
3. 접근-회피	3.832(1.277)	3.001(1.000)
4. 개인적 통제	4.208(1.402)	4.075(1.358)
5. 자아존중감	3.280(1.093)	3.147(1.049)
6. 긍정적 자아존중	3.456(1.152)	3.266(1.088)
7. 부정적 자아존중	3.015(1.005)	2.965(.988)
8. 내재적 동기	4.060(1.353)	4.240(1.413)
9. 재미 즐거움	3.942(1.314)	4.135(1.378)
10. 유능감	3.960(1.320)	3.726(1.242)
11. 자기선택감	4.498(1.499)	4.980(1.660)
12. 압박과 긴장	3.890(1.296)	4.164(1.388)

χ^2 검증을 검토한 결과 3, 4개의 경우 LMR, LRT, BLRT값이 $p>.05$ 이상으로 나타나 3개 계층모형과 4개 계층모형은 기각되었다. 셋째, 엔트로피 값은 전체적으로 90%의 올바른 분류율을 나타냈지만 계층 수가 늘어날수록 0.92에서 0.86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모든 통계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2개 계층모형을 선정하였다(Lanza & Collins, 2008).

이어서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를 통해 구분된 2개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와 하위요인의 평균값을 통해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7). 집단 1에는 전체 대학생에 67.8%가 소속되었다. 집단 1은 문제에 접근하는 자신감과 태도, 그리고 자기 조절을 반영하는 개인적 통제가 높다. 자아존중감도 또한 높으며 학업과 일에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높지만 학업과 일에 대한 자발적 동기는 낮다. 따라서 직관적 문제해결 접근방식과 높은 자기 믿음 그리고 능력 중심적이지만 낮은 동기를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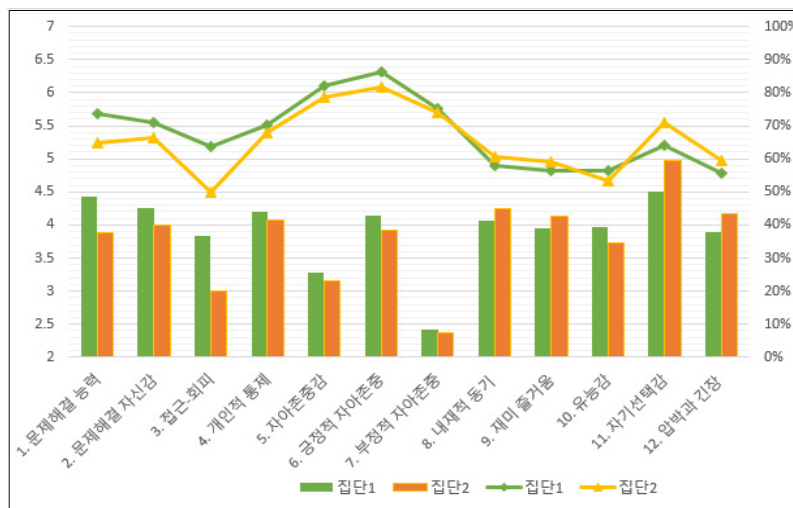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 수준

는 ‘고신념-저동기 문제해결형’ 이라 볼 수 있다. 집단 2는 전체 대학생에 32.2%가 소속되었다. 집단 2는 문제 접근하는 태도, 자신감이 전반적으로 낮고 자아존중감도 집단 1보다 낮으나 내재적 동기는 높다. 따라서 집단 2는 ‘저신념-고동기 문제해결형’ 이라 볼 수 있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 도출 후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에 따른 분포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고신념-저동기 문제해결형’에 해당되는 244명 중 일반대학생은 214명(87.7%), 성인학습자는 30명(12.3%)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신념-고동기 문제해결형’에 해당되는 116명 중 일반대학생은 1명(0.97%), 성인학습자는 115명(99.1%)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반대학생 대부분은 ‘고신념-저동기 문제 해결형’에 해당되고 성인학습자는 ‘저신념-고동기 문제해결형’에 포함되어 각기 다른 특성을 확인하였다.

논의 및 결론

점차 대학에 성인학습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성인학습자는 일반대학생과 다르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함께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이 일반대학생과 다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Bea & Metzner, 1985). 하지만 여전히 성인학습자는 대학의 주변인 또는 보충자원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나 성인학습자와 일반대학생을 비교하는 연구도 많지 않다. 하지만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현실 앞에서 성인

학습자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 깊은 심리적 요인인 문제해결 능력, 자아존중감, 내재적 동기에 따라 그 특성이 구분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제해결 능력은 대학생활 적응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 또한 대학생활 적응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Pyszczynski, Greenberg, Solomon, Arndt, & Schimmel, 2004) 문제해결 능력이 환경 적응에 중요한 요소라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김윤정, 유병은, 2016; 나준호, 2016). 내재적 동기 역시 대학생활 적응과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동기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성인학습자의 경우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중도 탈락율이 낮음을 보여준 선행연구 결과에 부합한다(정유지, 이은주, 2016). 또 내재적 동기가 높은 성인학습자는 높은 적응력과 자신의 직무 수행능력이 높아 삶 전반에 걸쳐 자아실현을 이룬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장성현, 2019).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요소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문제해결 능력, 내재적 동기 또한 필요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일반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소이고 성인학습자는 내재적 동기가 대학생활 적응과 가장 관련이 높은 요소였다. 일반대학생의 경

우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 적응에 기초요소라 제안하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박은희, 최은실, 2015). 내재적 동기가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관련이 깊다는 것은 원격대학 여성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열정과 인내를 설명하는 끈기(Grit)가 학업적응에 직·간접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대학생활 적응에 차별적 요소라는 것을 제안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임효진, 하혜숙, 2017). 또한 자아존중감은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제해결 능력과 대학생활 적응은 성인학습자가 일반대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내재적 동기는 성인 학습자가 높았다. 이는 일반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을 스스로 원하여 선택한 경우보다 거쳐야 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는데 반해 성인학습자의 대부분이 자기 발전과 학업적 욕구로 스스로 원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Knowels, 1999).

각 변인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문제해결 능력 하위요인인 접근-회피 유형과 대학생활 적응의 사회적응은 성인학습자가 일반대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성인학습자가 대학 구성원 중 소수자로 소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된다(황영아, 이선희, 정소미, 2020).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성인학습자는 일반대학생보다 대학생활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내재적 동기의 하위요인인 자기 선택감, 압박과 긴장은 성인학습자가 일반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인학습자는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 정서적 긴장감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 이에 더해 대학 구성원 중 소수자라는 위치는 대학생활에 긴장감과 압박감을 더욱 가중할 것이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경우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며 학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학업과 가정 및 직장 생활 균형이 깨어지면 대학생활과 적응이 어려워 지고 나아가 학업을 중단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된다(Rouèche & Rouèche, 1993).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 유형 차이를 알아보기로 잠재프로파일(LPA)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 유형이 2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가 각각 다른 특성의 집단에 포함되었다. ‘고신념-저동기 문제해결형’은, 직관적 문제해결 접근방식과 높은 자기 믿음 그리고 능력 중심적 특성을 보이지만 내재적 동기가 낮은 집단으로 대체로 일반대학생이 이 집단에 포함되었고, ‘저신념-고동기 문제해결형’은 높은 자기 인식, 열정적 참여 모습을 보이며 내재적 동기가 높지만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성인학습자 대부분이 이 집단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집단이 대학생활 적응 유형과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와 일치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성인학습자는 자발적으로 노력하며 내면적 욕구가 높다는 강점이 있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는 성향과 긴장감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성인학습자는 자신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참여 동기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경년, 2019; 심미자, 2016;

Bean & Metzner, 1985). 반면 성인학습자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다중역할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하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성인학습자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여 힘들어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일반대학생들은 높은 사회적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가진다는 강점이 있지만 내재적 동기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을 관리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과 제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주로 일반대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황영아 등(2020)이 제안한 성인학습자 대상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적응, 학습, 진로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인학습자의 심리적 특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심리적 특성과 특수한 요구를 파악한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고 문제 회피 능력과 압박 및 긴장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에 해당 되는 강점 발굴과 정서 및 동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문제해결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달리 일반대학생을 위해서는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 문제해결 기반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면 이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앞으로의 유입되는 성인학습자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일반대학생의 경우에는 일반화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특정 지역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수준의 모든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성인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의 학년별 분포에 차이가 있다. 비록 성인학습자의 경우 신입학 보다 2, 3학년 편입학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이들도 신입생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실제로 성인학습자가 1학년부터 입학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비록 본 연구를 통해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 유형과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지만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관해서는 일반대학생보다 비교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년 (2019). 성인의 문해력 상실과 획득에 미치는 연령과 문해 사용의 영향 탐색.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22(1), 27-52.
- 김동심, 김실희 (2017). 학업복귀 성인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및 성취도 예측변인 검증. *평생학습사회*, 13(4), 129-150.
- 김미영, 변은경 (2020)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

- 성, 정서표현성, 성취동기와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6(2), 77-84.
- 김미영, 강은희, 박효진 (2021).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0), 283-294.
- 김숙진, 안서영 (2018). 성인여성의 자아존중감이 국내 TV 홈쇼핑 뷰티상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9(2), 71-84.
- 김진모, 황영훈, 오진주, 손규태, 윤경신 (2017). 후진학 수요조사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발전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서울대학교.
- 김정옥, 김원일 (2018). 경찰관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0), 103-122.
- 김정현, 이희수 (2015).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학의 조직진단과 정책적 제언. *역량개발학습연구*, 10(2), 29-49.
- 김은석, 송경희 (2019).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목표 잠재 프로파일: 발달적 영향 요인과 대학생활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103-125.
- 김윤정, 유병은 (2016).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 변화. *KISTEP InI*, 12호 (2016년 2월),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나준호 (2016). 인공지능의 발전과 고용의 미래. *FutureHorizon: Spring*, 28, 14-17.
- 노승현 (2016). 기본심리욕구와 게임전략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게임물 입경험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정 (2018).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 (2002).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희, 최은실 (2015).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57-79.
- 박지현, 장재윤 (2016). 자기결정성이론에 기반한 한국 근로자들의 동기 구조 및 유형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1), 27-60.
- 박정숙, 권영은 (2015).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극복력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9(2), 212-221.
- 송승민, 이사라 (2016). 성인학습자의 자아존중감, 모 애착이 이러닝 교육과정의 학습자가 선택한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적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6), 167-176.
- 심미자 (2016).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 *교육컨설팅연구*, 4(1), 1-13.
- 심미정, 오효숙 (2012).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328-337.
- 윤선아 (2016). 청소년의 생애목표와 부모 양육태도, 정서문제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909-932.
- 임효진, 하혜숙 (2017). 원격대학 여성 성인학

- 습자들의 끈기 (Grit) 와 목표인식, 학업-가정갈등 및 사회적 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1(1), 59-81.
- 안현용 (2021). 성인학습자 특성이 대학 평생교육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 연구*, 17(1), 141-174.
- 장경화 (2015). 군 생활적응, 군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마음챙김 간의 관계.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1, 3-29.
- 정미강, 양안나 (2014).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특성 및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육부·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정유지, 이은주 (2016). 대학생의 자기결정 동기유형과 생애목표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과학연구*, 47(4), 187-208.
- 정상현 (2019). 성인학습자의 내적동기에 관한 연구: 기업 HRD 참여자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437-455.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전석균 (1994).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승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은희, 김명진 (2015). 고졸 취업자들의 평생학습 동기에 대한 탐색: 상고 출신 대학진학 여성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1(4), 195-232.
- 차란희, 노안영 (2020).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325-1345.
- 최진훈 (2008). 근로자의 놀이성이 일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업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숙, 최외선, 김갑숙 (2011). 해결중심 집단 미술치료의 운영 형태가 여고생의 몰입,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오선, 김수영 (2018).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습자의 학습실태 및 강의에 대한 인식-D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6(4), 121-149.
- 하오선 (2019). 평생교육 단과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장애 요인 탐색과 학업중단의사에 따른 인식 차이-D 대학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7), 39-56.
- 한국교육개발원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1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황영아, 이선희, 정소미 (2020). 대학 내 성인 학습자를 위한 대학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771-795.
- 허지숙 (2021).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참여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생애주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7(2), 99-123.
- Allen, J. P., Hauser, S. T., Eickholt, C., Bell, K. L., & O'Connor, T. G. (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expressions of negative adolescent aff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4), 535-552.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ean, J. P., & Metzner, B. S. (1985). A conceptual model of nontraditional undergraduate student attri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5(4), 485-540.
- Bell, A. C., & D'Zurilla, T. J. (2009). Problem-solving therapy for depression: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4), 348-353.
- Branden-Muller, L. R., Elias, M. J., Gara, M. A., & Schneider, K. (1992). The development and interrelationship of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cognitive skills in children: Theore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3(3), 271-291.
- Chirkov, V. I., & Ryan, R. M. (2001). Parent and teacher autonomy-support in Russian and US adolescents: Common effects on well-being and academic motiv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5), 618-635.
- D'zurilla, T. J., Chang, E. C., & Sanna, L. J. (2003). Self-esteem and social problem solving as predictors of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2(4), 424-440.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 Grant-Vallone, E., Reid, K., Umali, C., & Pohlert, E. (2004).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student support services on students' adjustment and commi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5(3), 255-274.
- Heppner, P. P., & Peterse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66-75.
- Knowels, R. L. (1999). *The Solar Envelope*. 1999.
- Lanza, S. T., & Collins, L. M. (2008). A new SAS procedure for latent transition analysis: transitions in dating and sexual risk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4(2), 446.
- Malouff, J. M., Thorsteinsson, E. B., & Schutte, N. S. (2007). The efficacy of problem solving therapy in reducing mental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46-57.
- Nippert, K. A. R. E. N. (2000). Influences on the educational degree attainment of two-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2(1), 29-40.
- Pyszczynski, T., Greenberg, G., Solomon, S., Arndt, J., & Schimmel, J. (2004).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 435-468.
- Roueche, J. E., & Roueche, S. D. (1993).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 At-Risk Student in the Open-Door College*.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 One DuPont Circle, NW, Suite 410, Washington, DC 20036.
- Ryan, R. M. (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450.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ufeli, WB., & AB, Baker. (2004)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 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3), 293-315.
- 원 고 접 수 일 : 2023. 09. 25.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1. 15.
최종게재결정일 : 2024. 01. 31.

The Difference in College Life Adjustment between Traditional Students and Adult Learners According to their Problem-solving Competence, Self-esteem, and Intrinsic Motivation

Yoonmi Jeoun¹⁾

Yoonhyoung Lee¹⁾

¹⁾Hwashin Cyber University of Counseling Psychology Assistant Professor

²⁾Yeungnam University of Psycholog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raditional students and adult learners adjusted differently to college life based on their problem-solving competence, self-esteem, and intrinsic motivation. To do so, we conducted latent profile and cross-tabulation analyses. The participants were 215 traditional students and 145 adult learner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groups had similar levels of self-esteem but traditional students adjusted better to college life and had greater problem-solving competence than adult learners. Second, adult learners had higher intrinsic motivation levels than traditional students. Third, college life adaptation styles were classified as either high belief-low motivation or low belief-high motivation with most traditional students belonging to the former type and most adult learners belonging to the latter, indicating that traditional students and adult learners have different college life adaptation sty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fferent support systems should be offered to each group.

Key words : college life adjustment, problem solving, self-esteem, intrinsic motivation, latent profile analys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3A2A02103899).